

## 안동 도산구곡

# 위대한 哲人의 발길 머물던 아홉 굽이

낙동강 물줄기 따라 조성된 도산구곡(陶山九曲)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인(哲人)으로 꼽히는 퇴계 이황의 발길이 머물던 현장이다.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아래쪽의 여러 굽이가 호수 속에 잠겨 있지만, 후인들은 그 아홉 굽이를 답사하면서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실천했던 고결한 학문 정신을 생생하게 느낀다.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명 가문의 종택들... 영남 땅 북부의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자부심대로 전통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이다. 안동의 이런 위상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다.

안동의 젓줄인 낙동강 본류에 설정한 도산구곡(陶山九曲)은 퇴계 이황이라는 조선 성리학의 거목이 학문하고 사색하며 거닐던 굽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도산구곡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설정됐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퇴계 사상의 근원을 이루는 주자(朱子)가 말년에 무이산에 은거하면서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지은 것처럼, 퇴계는 도산 기슭에 은거하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란 시를 남기기는 했다. 그러나 12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무이구곡처럼 어떤 굽이의 경관을 읊은 시가 아니라, 앞의 육곡(前六曲)은 '언지(言志)'라 해서 사물을 접할 때에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했고, 뒤의 육곡(後六曲)은 '언학(言學)'이라 해서 학문과 수양을 통한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

후대의 학자들은 퇴계가 주자의 무이구곡을 선망했음에도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굽이에 도산구곡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까닭을, '주자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해 가장 존송하는 스승을 흉내 내 구곡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손으로 여겼을 거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유럽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다 "중국의 무이산에 주자가 있다면, 조선의 도산에 퇴계가 있다."는 학문적 자부심이 도산구곡을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한다. 특히 주자의 학문을 계승·집대성해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퇴계의 학문 정신이 남아 있는 낙동강변의 도산은 성리(性理)가 구현된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외적인 풍광으로도 강폭도 넓고 수량도 많으며 경관도 빼어나 주자의 무이구곡과 충분히 비견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탬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초에는 도산구곡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8세기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도산구곡시가 지어졌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산구곡 관련 시는 20여 편에 이르는데, 주로 퇴계학과 계열의 성리학자 문집에 전한다. 아직 간행되지 않은 문집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구곡 시가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경상대학교 최석기 교수는 <도산구곡정립(陶山九曲定立)과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 창작배경>이란 논문에서 도산구곡의 정립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도산구곡은 퇴계의 후손인 광희(廣瀨) 이야순(李野淳, 1755~1831)이 1800년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범위는 월천곡(月川曲)에서 단사곡(丹砂曲)까지였다. 그 다음 후계(後溪)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1818년~1820년 사이에 독자적으로 설정하면서 범위를 운암곡(雲巖曲)부터 청량곡(淸涼曲)까지로 넓혔다. 그 뒤 이야순은 이이순이 설정한 것을 수용하면서 비암곡(鼻

巖曲)을 제외하고 오담곡(鰲潭曲)을 추가하여 2차로 도산구곡을 설정하였다. 이야순이 이 구곡을 <무이도가>에 차운하여 <도산구곡가>를 지은 이후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이야순의 구곡 시에 차운했고, 이야순이 재설정된 도산구곡은 널리 수용되었다. 이야순의 시를 따라 도산구곡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비단 같은 산과 유리 같은 물 맑고 신령스러운데(錦繡琉璃已炳靈)  
산은 더욱 높으며 강물은 더욱 맑고 맑구나(山增巖巖水增淸)  
무이산 거대한 은병봉이 여기서 멀다 말하지 말게(休云大隱屏相遠)  
천년 동안 한 곡조의 뱃노래로 다 함께 들린다네(千載同歸一櫂聲)

이야순은 서시(序詩)에서 도산구곡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면서 유람을 시작한다. ‘비단 같은 산’, ‘유리 같이 맑은 물’이란 표현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도산구곡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퇴계는 도산의 높고 맑은 경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이야순은 둘째 구에서 퇴계의 시를 인용하면서 도산과 퇴계의 관계를 선명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주자의 무이구곡과 비교를 시도한다. 무이산 은병봉(隱屏峰)은 주자가 은거하던 무이정사가 있는 곳이다.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천인합일의 정신세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도산구곡 유람길에 나서자고 권유하는 것이다.

제1곡 운암사곡

운암사 앞 강물에 배를 띄우노라

도산구곡 유람의 시작, 제1곡은 운암사곡(雲巖寺曲)이다. 이 굽이로 가려면 안동시와 룡면 오천리의 ‘외내길’로 한참을 들어간다. 고개를 하나 넘고 잠깐 보이는 안동호를 옆보며 간다. 길이 끝날 무렵 문득 외로운 민가 한 채가 반갑다. ‘외내길’로 운암사곡 가는 길의 마지막 민가다. 이 집 마당을 지나 400~500m 정도 걸어 내려가면 잔잔한 수면의 호수가 보인다. 여기가 바로 운암사곡이다.

이따금 물오리의 날갯짓과 물고기 침병거리는 소리가 적막을 깨뜨릴 뿐 사위는 고요하다. 호수 너머로는 운암산(雲巖山, 일반 지도에는 운남산으로 표기돼 있음)이 뾰족하게 솟아 있다. 그 산기슭의 강변에 있던 운암사(雲巖寺)라는 절은 오래 전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터마저도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다. 운암사는 대동여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규모가 작은 절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산구곡의 제1곡인 운암사곡 풍경.  
낙동강 물결이 휘돌아가던 이곳은  
안동댐이 생기면서 호수에 잠겼다.

지금은 호수로 바뀌었고, 옛 강변길도 묻혀버려 운암사곡을 답사하기는 까다롭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 《오가산지》를 보면 많은 유학자들이 배를 타고 도산구곡을 유람했음을 알 수 있다. 첫 굽이인 이 운암사곡에서 진짜로 배를 띄웠던 것이다.

“이 산을 노니는 사람은 운암곡의 풍월담에 배를 띄우고 오담과 탁영담 굽이에 노를 저어 올라가서 도산의 상덕사를 배알하고, 곧바로 거슬러 올라서 굽이굽이 기이한 경관을 관람하고, 12봉우리 정상에 올라 임하면 시야가 확 트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지금은 호수에 잠긴 오천(외내마을)은 조선 초기부터 광산 김씨(光山 金氏) 예안파(禮安派)가 600여 년 동안이나 세거(世居)해 온 집성촌이었다. 퇴계의 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逋, 1543~1620)가 안동부사로 왔을 때 “오천의 한 마을에는 군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오천은 군자리(君子里)라고도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런데 안동호가 생기며 이 전통마을이 수몰되게 되자 후손들은 마을에 있던 옛 건축물들을 새로운 터전으로 옮겼는데, 지금 35번 국도변에 조성된 ‘오천리 군자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오천리 군자마을’은 비록 제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의젓하게 혹은 화려하게 서있는 각각의 고택들에서 조선 건축물의 멋과 격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 선조 때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은 후조당(後彫堂, 중요민속자료 제227호)이다. 이 외에도 탁청정(중요민속자료 제226호), 탁청정 종택(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6호), 침락정(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40호) 등 가치 있는 문화재가 많다. 운암사곡을 찾을 때 꼭 연계해서 둘러봐야 할 전통 마을이 아닐 수 없다. 이야

순은 노래한다.

일곡이라 바위 위의 구름 배를 잡아당길 듯(一曲巖雲若挽船)  
추로지향 군자 많지만 그중에도 오천이라네(魯多君子說烏川)  
단풍에 어린 저녁 풍경 누가 이어 노래하리(丹楓落日吟誰續)  
쓸쓸한 절에는 한 점 푸른 연기만 머물 뿐(蕭寺靑留一點烟)

맹자의 고향인 추나라와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를 의미하는 추로지향(鄒魯之鄉)은 백성들이 예절을 알고 학자들이 학문에 힘을 쏟는 곳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이 대표적인 추로지향이라 불려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곳 오천 마을을 으뜸으로 꼽았다.

조선 중기 이 마을에는 퇴계의 제자들이 많았다. 퇴계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앞 강변의 운암사에서 노닐 적이 있다. 셋째 구는 이때 지은 퇴계의 시구를 인용했다. 퇴계의 학문을 이어갈 뛰어난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퇴계의 학풍을 ‘단풍에 어린 저녁 풍경’에 비유하며, 그 학풍을 누가 이어가겠는가 묻고 있다. 운암사란 절은 이야순이 도산구곡을 경영하던 당시에도 이미 퇴락했던가보다. 쓸쓸한 절에 감도는 한 점 푸른 연기는 세월의 유한함에서 오는 인생무상을 말한다. 그렇지만 허무에서 끝낼 게 아니라 유학자들은 도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 이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반어법인 것이다.

제2곡 월천곡

달빛 흐르는 강물이 어느때노

제1곡에서 물길을 따라 6km 거슬러 오르면 제2곡 월천곡(月川曲)에 닿는다. 제1곡에서 제2곡으로는 강 따라 이어진 길이 없어 다시 큰 길로 나와 접근해야만 한다. 35번 국도변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다래’와 ‘월천서당’ 이정표를 따라 곧장 산길을 따라 들어가면 월천마을에 이른다. 물비린내 자욱한 월천마을 호숫가 언덕에 월천서당이 있다. 월천마을은 낙동강변의 마을이었으나 호수가 생기면서 대부분 주민들은 떠나갔고, 몇 집 남아 있던 가구도 최근 유교문화단지 조성공사로 대부분 이사를 갔다.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살지 않아 빈터로서 ‘솔내’라 불리던 곳인데, 조선 전기에 동지공 권수익(權受益)이 이곳의 빈터를 정리하고 자리 잡으면서 한자 지명인 월천으로 고쳤다. 후에 동지공의 외손인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이 마을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월천으로 삼았던 것이다. 월천은 순우리말로는 월애, 달애, 달래, 다래 등으로도 불린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월천 조목은 퇴계와 평생 가장 가까웠던 인물로 꼽힌다. 월천은 일찍이 퇴계의 제자가 된 후 과거를 포기하고 퇴계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경전 연구에만 주력했다.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제자, 즉 수제자를 고제(高弟)라고도 하는데, 퇴계의 팔고제(八高弟) 중에서도 평생 퇴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월천은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의 유일한 배향자로 올라 있다.

마을길로 이어진 언덕 중간으로 올라가면 월천서당(月川書堂, 경상북도기념물 제41호)이 단아한 자태로 나그네를 반긴다. 월천서당은 월천 조목이 후진을 양성하고 학문에 몰두하기 위해 1539년에 건립한 서당이다. 입구의 아름드리 은행나무는 서당의 역사를 침묵으로 일러준다. 고졸한 건물은 곳곳한 늙은 선비를 닮았다. 현판은 퇴계의 글씨다. 이야순은 제2곡을 노래한다.

이곡이라 부용봉 옥을 깎아 만든 듯(二曲芙蓉削玉峯)  
누굴 위해 만들었나 달빛 가득한 풍월담(爲開風月滿川容)  
학문으로 나아가는 길의 연원은 트여있으니(通郊十里淵源闊)  
구름 연기 한두 겹 막혔다고 말하지 말게나(莫道雲烟隔一重)

이야순은 월천마을에서 퇴계의 가장 큰 제자를 생각하며 노래한다. 셋째 넷째 구에서는 유학자가 학문적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구름 연기가 한두 겹 가로막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타이르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월천 조목의 학문이 단절됨을 안타까이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월천은 퇴계를 가장 가까이서 모신 수제자였으나, 자신의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 자체 학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곡 오담곡

동방의 역학, 여기서 꽃 피우다

셋째 굽이인 오담곡(鰲潭曲)은 제2곡에서 물길 한 굽이를 거슬러 2km 정도 올라간 지점이다. 이곳 역시 안동호 물에 잠겨 확인할 수 없지만, 상류의 분천을 흘러온 강물이 이 담에 잠시 숨을 고르고 흘러갔다. 주변 바위들과 어우러진 그 담의 모습이 마치 자라의 형상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경치보다 한 인물을 떠올리니 바로 우탁(禹倬, 1262~1342)이다.

흔히 역동선생(易東先生)으로 불리는 우탁은 고려 후기 성리학(정주학)을 수용한 초기의 유학자다. 당시 원나라를 통해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우탁은 이 학문을 깊이 연구해 후학들에게 전했다. 우탁의 가장 큰 업적은 《주역(周易)》의 해석이다.

이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 퇴계가 주도해 1570년 역동서원(易東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146호)을 짓게 된다. 역동(易東)은 ‘우탁이 주역(易)을 처음으로 연구해 이 땅에서 강학함으

로써 주역이 전해지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안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역동서원은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꿰뚫는 주역의 사상이 서려 있는 곳이다. 서원 철폐 때 훼손되었다가 1969년 안동시 송천동으로 옮겼고 지금은 안동대학교에서 관리하면서 한국학을 연구와 전통문화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삼곡이라 연못의 자라 배를 이고 있는 형상(三曲潭鰲爲戴船)  
우리나라 역학이 어느 해에 시작되었나(吳東易學昉何年)  
오랜 세월 공력 쌓아 주역 이치 밝혔는데(積陰已久乾坤闢)  
명교당 정일재 안에는 달빛만 다시 애잔하네(精一齋中月更憐)

이 시에서 알 수 있듯 이야순은 삼곡 시에서 우탁의 큰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 고려 말기에 《주역》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나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우탁이 이를 연구해 처음으로 역학의 이치를 깨우쳤다고 한다.

넷째 구는 역동서원에 비치는 달빛으로 선현을 기리고 있다. 명교당(明教堂)은 서원의 강당이고, 정일재(精一齋)는 명교당 동쪽의 작은 방이다. 정일(精一)이란 ‘마음을 오직 정밀하게 관찰하여 올바른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는 의미. 서쪽의 큰 방인 직방재(直方齋)는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의 일을 바르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4곡 분천곡

강물에 어른거리는 어부가 노랫소리

제3곡에서 물길을 거슬러 2km 올라가면 제4곡인 분천곡(汾川曲)이다. 물길이 오른쪽으로 크고 부드럽게 휘어지기 직전에 위치한 굽이인데, 유명한 농암(龕巖)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 역시 지나온 세 굽이와 마찬가지로 안동호에 수몰이 된 지역이다. 그나마 호수의 상류라 갈수기에는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35번 국도변의 분천리경로당에서 마을길인 ‘송티길’을 따라 강 쪽으로 내려가면 길 끝에서 분천마을 빈터와 마주하게 된다.

분천마을은 원래 영천 이씨(永川 李氏)의 집성촌으로, 입향 시조는 고려 말에 군기시소 윤(軍器寺小尹)을 지낸 이현(李軒)이다. 그는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영천을 떠나 낙동강변의 이곳으로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 마을 앞의 강 가운데는 널따란 바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낙동강물이 갈라져 흘렀다. 그래서 상류를 휘돌아 내려온 낙동강물이 이 지점에 이르면 넓게 퍼지면서 갈라져 흘렀다고 한다. 한자로 분천(汾川), 분강(汾江)이라



도산구곡의 제3곡인 오담곡, 우탁을 모신 역동서원이 여기에 있었다. 지금은 안동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산구곡의 제4곡인 분천곡. 도산서원을 휘돌아 내려온 낙동강물이 이 지점에 이르면 넓게 퍼지면서 갈라져 흘렀다고 한다.

고 쓰는 유래가 된다. 순우리말로는 낙동강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부내’라 불렀다고도 한다.

분천에서는 누구라도 농암(龕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를 떠올린다. 조선 중기 때의 유학자인 농암은 조선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인 문인으로서 우리 문학사에서 강호 시조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농암은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호조참판까지 지냈으나 76세 때 낙향해 만년을 강변에 묻혀 시를 지으며 은거했다. 이 무렵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어부가(漁父歌)>를 새로 고쳐짓기도 했다.

농암은 분천을 일컬어 “정승벼슬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는데, 농암이 60세 때 부모 잔치날 모습을 담은 그림인 《애일당구경첩(보물 제1202호)》의 <분천헌연도(汾川獻宴圖)>에는 아름다운 강마을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안동댐으로 수몰될 때 후손들은 이보다 12~13km 정도 상류인 도산면 가송리 강변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농암종택과 궁구당, 애일당, 서원 등의 유적과 고택도 함께 이전했다. 이후 종택이 있던 집터는 잡목 우거진 빈터가 되었고, 인적 드문 강변 숲에는 고라니와 꿩들만이 쉬어갈 뿐 고택과 어우러진 옛 강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

갈수가 되면 분천마을 앞 강가에는 큼직한 바윗덩이가 여럿 드러나는데, 가장 큰 바위의 강쪽 면에 ‘분천(汾川)’이란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다. 잡초 무성한 산쪽의 평평한 터가 바로 종택 등이 있던 곳이다. 여기서 상류로 600m 정도 더 올라가면 옛 애일당이 있던 자리 앞의 언덕 아래 강가에 새하얀 바위가 농암이다. 그 앞 강가에는 농암이 후배인 퇴계와 함께 유상곡

수(流觴曲水)를 즐기던 점암과 사자바위 등이 있으나 모두 안동호 물속에 잠겼고, 갈수기에만 이따금 모습을 드러내 선인의 옛 사연을 들려준다. 이렇듯 분천은 농암의 숨결이 생생한 굽이였다. 이야순은 노래한다.

사곡이라 거센 물가 바위 귀머거리 되고(四曲偏巖激水巖)  
 바위 위 구름 겹겹이 둘러싸 푸르게 내려오네(巖雲重鎖碧氤氳)  
 농암에 살던 신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巖居仙伯今何處)  
 복사꽃잎 떨어지고 있는데 달은 못 속에 있네(花落蟠桃月在潭)

이야순은 강물이 갈라져 넓게 퍼져 흘러내리는 부내에 이르러 <어부가>를 지어 부르며 은거란 농암 이현보를 떠올렸다. 농암으로는 거센 물살이 부딪치며 귀가 멍멍해지는데, 그 위로는 구름이 겹겹이 싸여 푸른 기운을 끼고 있었다. 농암의 <어부가>가 울려 퍼지는 부내의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선하다.

셋째 구의 ‘농암에 살던 신선’은 이 아름다운 굽이에서 살던 농암 이현보를 말한다. 퇴계는 벼슬에서 물러나 이곳에 은거하던 농암을 노선백(老仙伯)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지막 구는 농암이 퇴계를 초청해 임강사(臨江寺) 반도단(蟠桃壇)에서 꽃을 감상했던 고사를 떠올린 것이다. 이야순이 이곳에 들렀을 때 퇴계와 농암이 함께 즐기던 복사꽃잎도 스러져 모두 사라졌지만, 농암의 여러 업적은 밤이면 빛나는 영원한 달처럼 강가의 저 푸른 못 속에 있다고 예찬한다.

제5곡 탁영담곡

세상이 깨끗하면 갯끈을 씻고

제4곡 분천곡의 농암에서 상류를 올라다보면 눈앞 산자락에 안겨 있는 도산서원이 보인다. 배를 타고 도산구곡을 유람하던 유학자들은 강 물결 뒤로 도산서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옷깃을 여미었을 것이다. 도산서원 앞의 물결이 굽이도는 지점이 바로 제5곡 탁영담곡(濯纓潭曲)이다. 분천곡에서는 1.2km 상류 지점이다.

탁영담을 언급한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 굽이를 특히 사랑했던 퇴계는 <도산잡영병기>에 “시내가 동병에서 서쪽으로 달려 산 발꿈치에 이르면 물이 넓어지고 깊어지니 몇 리 사이를 시내 따라 거슬러 오르면 깊어서 배를 운행할 수 있다. 금빛 모래 옥 같은 조약돌이 맑고도 밝으며 푸르고 차가우니 곧 이른바 탁영담이다.”고 적었다. 퇴계는 탁영담에서의 뱃놀이



운치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듯 퇴계가 만년에 학문과 구도의 삶에 몰두할 때의 중심 공간인 제5곡의 도산서원은 무이구곡에서 주가가 머물던 무이정사가 있던 제5곡의 무이정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오곡이라 탁영담은 깊고 깊어서(五曲纓潭不測深)  
채우고 남은 물결 사방을 적시네(涵滄餘派遍千林)  
옛 같은 달과 끝없이 흘러오는 물(如斯有水源源處)  
고인(古人)을 생각하니 실로 내 마음과 합하는구나(思古人惟獲我心)

‘갯끈을 씻는다’는 뜻의 ‘탁영(濯纓)’이란 이름은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詞)>에서 유래했다. 강남으로 귀양 와 있던 굴원이 거기서 만난 어부에게 ‘다른 이는 틀리고 자신만의 곧음’을 내세우자, 어부가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可以濯吳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吳足)’하고 노래했다는 고사다.

이야순은 낙동강물이 탁영담 가운데의 반타석을 채우고 나면 그 물결은 사방을 적신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도산서원이 조선 성리학의 성지로서 이 땅 전역에 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듯이, 그 앞을 적시고 흐르는 탁영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넷째 구의 ‘사고인유아심(思古人獲我心)’은 퇴계의 자명(自銘)에 나오는 “내 고인을 생각하니 실로 내 마음과 합하는구나(我思古人 實獲我心)” 하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퇴

계가 떠올린 옛 사람은 공자, 맹자, 주자 등 성현(聖賢)들을 의미하고, 나중에 이 노래를 부른 이야순은 ‘동방의 주자’로 추앙받는 퇴계를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가 탁영담곡에서 만나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로 추앙 받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모신 서원이다. 전교당(典教堂, 보물 제210호)에 걸린 ‘도산서원(陶山書院)’ 현판 글씨는 1575년(선조 8)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임금 앞에서 쓴 것이라 한다. 맨 앞의 도(陶)자가 글씨체가 달라 약간 비뚤어지게 보이는데, 안동 지방에는 조선 최고의 명필도 손이 떨릴 정도로 퇴계의 권위가 높았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설화가 전해온다. 현판의 진품은 현재 유교문화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도산서원에 걸려 있는 것은 복각품이다.

도산서원 맞은편 강 건너에 섬처럼 솟아 있는 언덕은 시사단(試士壇)이다. 1792년 정조가 특별히 영남의 사림을 위해 도산서원에서 과거를 베풀었던 것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전각을 세운 것이다. 안동댐 건립 당시 호수가 생기며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그 자리에 거북 모양의 언덕을 쌓은 뒤 그 위로 옮겼다.

### 제6곡 천사곡

모래벌판에서 부르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제5곡에서 물줄기가 한 굽이를 크게 왼쪽으로 휘돌아간 뒤 다시 오른쪽으로 휘감는 빠른 모서리가 제6곡 천사곡(川沙曲)이다. 제5곡의 탁영담곡이 있는 도산서원에서 상류로 3.6km 떨어져 있다. 현재 도산서원에서 이어지는 강변길이 없어 토게리의 퇴계종택과 퇴계 묘소 앞을 거쳐 가야한다.

퇴계묘소 앞 토게리의 하계(下溪)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난 큰 길을 따라 고개 하나를 넘으면 원촌 마을이다. 원촌 마을은 진성 이씨(眞城 李氏) 집성촌. 옛날 퇴계가 청량산으로 공부하기 위해 강변길을 걸어 올라갈 때 원촌, 천사, 단사, 매내, 울미재, 가사리, 너분들,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는데, 집을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마을이 바로 이 원촌 마을인 것이다.

고개를 넘다보면 원촌 들판과 내살미 들판 사이로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가 살짝 허리를 드러낸다. 바로 여섯 째 굽이인 천사곡(川沙曲)이다. ‘천사’는 내살미, 천사미, 천사, 천곡 등으로도 불린다. 이 강마을은 우리에게 <광야>, <청포도> 등으로 잘 알려진 일제강점기 때 항일 시인(抗日詩人) 육사(陸史) 이원록(李源祿, 1904~1944)의 고향이다.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열일곱 차례의 옥고를 치렀고, 결국에는 1944년 북경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친 민족시인 이육사. 시인을 생각하면 입가에서 저절로 맴도는 그 노래.



도산구곡의 제6곡인 천사곡. 원촌마을 들판  
너머로 낙동강 강물이 살짝 보인다.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문학관은 규모는 아담하지만 육사의 안경과 친필 원고 등 의미 깊은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 주변에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그렸던 <절정>, 고향의 계절적 감상에 민족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청포도>, 잃어버린 조국을 부르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렸던 마지막 절명시이면서 대표 시인 <광야>를 새긴 시비들이 세워져 있다. 그 뒤에는 육사의 생가인 육우당(六友堂)이 복원돼 있고, 그 뒷산 능선에는 육사의 묘소도 있다.

퇴계는 천사곡을 이렇게 노래했다. “천사곡 시냇물은 산굽이를 흘러들어(川流轉山來) / 옥 같은 무지개가 마을을 감싸 드리웠네(玉虹抱村斜) / 언덕 위에는 푸른 밭두둑 무성하고(岸上藹綠疇) / 숲가에는 흰모래가 펼쳐져 있네(林邊鋪白沙)” 후손인 이야순도 노래한다.

육곡이라 나무숲이 옥 같은 물굽이를 감싼 곳(六曲林墟抱玉灣)  
피라미와 백로는 사이좋게 지내네(鯨魚白鳥好相關)  
하명동(霞明洞)에 핀 늦은 꽃 더욱 어여뻐(更憐花晚霞明處)  
서쪽 바라보며 한적한 골짜기 하나 차지했네(西望曾專一壑閒)

이야순은 첫 구에서 천사곡 풍경을 읊는다. 옥 같이 맑은 물결이 흐르는 강변의 물굽이를 푸른 나무숲이 둘러싸고 있다. 강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강가의 새하얀 백로는 서로 잡

혀먹고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이좋게 살아가며 평화로운 강풍경의 한 장면을 만든다. 세속의 약육강식 세계가 아니라 무릉도원이나 별천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구의 ‘한적한 골짜기’는 중국 북송(北宋) 때의 문필가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시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은거하며 살고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곳 역시 은거하기 좋은 곳이란 의미가 된다.

### 제7곡 단사곡

#### 도인들 살았다는 전설의 마을

천사곡 굽이에서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낙동강 물굽이는 다시 왼쪽으로 휘감는다. 원촌마을 맞은편의 내살미가 서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면 단사는 동쪽으로 고개를 내민 형국이다. 이 둘은 지금까지의 도산구곡 중 어느 굽이보다 심한 굽이로 짝을 이루며 사행천으로 ‘갈지(之) 자’를 이룬다.

마을길로 들어서서 평평한 단사 들판으로 난 농로를 따르면 곧 강변이 나오고, 그 너머로 검붉은 암벽이 병풍처럼 버티고 선 특이한 풍경과 만난다. 강 너머 동남쪽의 단사벽 뒤로는 왕모산(648m)이 솟아 있다. 여기가 제7곡인 단사곡(丹砂曲)이다. 천사곡에서 2.5km 상류지점이다.

단사(丹砂)라는 지명은 낙동강 물길의 공격 사면에 솟아 있는 깎아지른 벼랑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한다. 이곳은 아주 오랜 옛날 신선들이 살던 곳이라는 전설도 전한다. ‘붉은 흙’은 신선들의 불로의 식량이 된다. 또 단사(丹砂)라는 단어는 도교에서 불사약인 금단(金丹) 제조에 가장 중시했던 재료로서 영약(靈藥)이나 선도(仙道)라는 뜻으로 쓰인다.

단사마을은 이런 자연 풍광 뿐 아니라 주민들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자체로도 제법 신비스럽게 여겨지는 마을이었다. 퇴계는 이 마을을 “비스듬히 이어가서 단사벽에 이르면 푸른 산, 붉은 벼랑이 깎아지른 듯 천 길 높이 서고 푸른 강이 마을 안아 푸른 벽을 다하며 구름을 내고 물을 푸르게 하니 마치 그림에 들어온 듯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야순은 어땠을까.

칠곡이라 휘감아 도는 한줄기 여울물(七曲縈迴一水灘)  
갈선대와 고세대를 다시 돌아서 보네(葛仙高世更回看)  
만 섬의 붉은 단사 하늘이 감춘 보배(丹砂萬斛天藏寶)  
푸른 절벽에 구름 일어 찬 물이 어리네(靑壁雲生相映寒)

이야순도 단사의 신비함을 묘사하기 위해 도교를 끌어들인다. 갈선대와 고세대는 강변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갈선(葛仙)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신선이 된 갈현(葛玄, 164~244)을 말한다. 도교에서는 갈선공(葛仙公)이라 존칭하며 태극좌선공(太極左仙公)이라고도 높여 부르는 인물이다. 고세(高世)는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 네 사람, 즉 상산사호(商山四皓)를 의미한다. 따라서 둘째와 셋째 구에 등장하는 갈선, 고세, 단사는 이곳의 지명이면서 속세와는 동떨어진 도가의 은거지를 일컫는다.

그렇지만 이야순은 신이한 것을 믿지 않는 조선의 성리학자다. 따라서 이런 도교적인 분위기를 전설로 여기고, 마지막 구에서는 푸른 절벽, 찬 물을 동원해 유교의 도로 되돌아간다.

퇴계도 강 너머 동쪽에 솟은 붉은 바위벽을 보며 “이 곳에 장수 노인들 많다는 말 알겠으나 / 병든 이 몸 저 푸른 봉을 쪼개서 무엇 하리” 하고 도교를 비판적으로 노래했다.

제8곡 고산곡

낙 동 강 에 서  
가장 아름다운 협곡

단사마을을 뒤로 하면 곧 단천교 앞에 다다른다. 여기서 ‘퇴계 예던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단천교를 건너지 않고 건지산(559m) 기슭으로 올라가는 강 왼편의 서쪽길, 그리고 단천교를 건너 강변 따라가는 강 오른편의 동쪽 길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쪽 길은 건지산 오름길에서 땀을 좀 빼야하지만, 이제 제법 가까워진 청량산 풍경을 눈에 제대로 담을 수 있고, 농암종택도 자연스레 들르게 된다.

본격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의 전망대에 서면 눈앞에 미천장담(彌川長潭)이 펼쳐진다. 낙동강 물결이 굽이굽이 거칠게 흘러내리다 여기에 이르러 잔잔해지면서 길고 맑은 아름다운 못을 이루는 풍경을 일컫는 말이다. 그 너머로 학이 살았다는 병풍 같은 벼랑 학소대, 그리고 저 멀리 낙동강의 연꽃이라 할 수 있는 청량산 암봉들이 한 폭의 그림으로 눈에 가득 들어찬다.

퇴계도 청량산으로 갈 때 이곳에서 저 풍경을 바라봤다. 일찍 부친을 여읜 퇴계는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瑀, 1486~1521)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갈 때 이 길로 갔다. 또한 벼슬에서 물러나 만년에 제자들과 청량산으로 가면서 이곳을 지날 때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노래한 그 길이다.

강변 풍광에 취해 물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몇 번 반복하고 건지산을 넘어 내려선 뒤 다시 강변길로 붙으면 제법 규모가 큰 고택이 반긴다.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종손이 살고 있는 농암종택(龔巖宗宅)이다.

옛 터는 아니다. 안동댐 건설로 제4곡 분천곡의 부내마을을 눈물로 떠나야만 했던 농암의 후손들이 한동안 마땅한 터를 잡지 못하다가 30년이 지나서야 옮겨지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강변이 워낙 아름다운 덕인지 종택에서는 어느덧 옛 향기가 그윽하게 흐르고 있다. 종택의 상징적인 건물인 긍구당(肯構堂)은 고려 말에 지어진 것으로 600년이 넘는 고옥이지만 안동 선비의 성품을 닮은 듯 검소하면서도 당당하다. 긍구(肯構)란 <서경(書經)>에 나오는 구절로, 조상의 업적을 길이길이 이어받는 집이라는 의미. 애일당(愛日堂)도 빼놓을 수 없다. 농암이 연로한 부모님을 더욱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기 위해 지은 집인데, 애일(愛日)은 늙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하루하루를 아끼며 효도를 하겠다는 뜻이다.

농암종택을 지나 미루나무 있는 강변길을 따라 내려가며 크게 한 굽이를 돌면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독특한 풍경이 반긴다. 바로 가송협(佳松峽)으로도 불리는 제8곡인 고산곡(孤山曲)이다. 단사곡에서 약 7.2km 상류 지점이다.

곧게 흐르는 낙동강물 왼쪽에 솟은 암봉이 바로 고산(孤山)이다. 《오가산지》에 “고산은 축융봉 서쪽 산기슭이다. (중략) 세상에 전하길 낙동강이 산을 안고 돌아 흐르는데 하루는 갑자기 크게 천둥이 치며 벼락이 떨어져 창애를 깨뜨리니 강물이 그 사이를 흘러 고산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보인다.

낙동강 푸른 물결이 벼랑 사이를 흐르는 풍경은 도산구곡에서 가장 빼어날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포함 이 땅의 웅만한 강변 풍경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절경이다. 여느 명소보다 더 뛰어난 이 풍경은 강 건너 벼랑 아래 다소곳이 자리 잡고 있는 정자인 고산정(孤山亭)이 화룡점정을 찍는다.



단사마을에서 '퇴계 예던길' 전망대. 청량산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낙동강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인 고산곡.  
낙동강물 왼쪽에 솟은 암봉이 고산(孤山)이다.



도산구곡의 아홉째 굽이인 청량곡 가는 길. 낙동강 맑은  
강물 너머로 청량산의 얼굴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고산정은 퇴계의 제자인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경영하던 정자다. 금난수는 정유재란 때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많은 선비들이 호응해서 참가하고 지방민들이 군량미를 헌납했다고 한다. 평소 금난수를 아낀 퇴계는 이 정자를 자주 찾아와 빼어난 경치를 즐겼다. 퇴계는 이 정자에서 강줄기와 협곡을 즐기며 시도 여러 편 지었다. 고산정의 현판은 퇴계 이황의 글씨고, 퇴계가 지은 <서고산벽(書孤山壁)>이란 시도 걸려 있다.

일동 주인 금씨를 한 번 만나 보려고(日洞主人琴氏子)  
강 건너에서 지금 계시는지 물어보네(隔水呼問今在否)  
농부는 손을 저어 들리지 않는다 하니(耕夫揮手語不聞)  
구름 낀 산 바라보며 한참을 앉았네(帳望雲山獨坐久)

이 시편에는 퇴계가 청량산을 가다 고산을 지나면서 보고픈 제자 금난수를 만나려한 정경이 잘 드러난다. 때는 봄이었던가. 강 건너에서 쟁기질 하던 농부에게 큰 소리로 정자 주인이 있냐고 묻지만, 농부는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고 손사래를 친다. 할 수 없이 퇴계는 강가에 앉아 구름 낀 산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야순도 이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다.

팔곡이라 옥거울 같은 물가에 홀로 선 산(八曲山孤玉鏡開)  
또렷또렷한 심법이 이 물가에 맴도는구나(惺惺心法此沿澗)  
멈추어 노래하다 푸른 절벽 향해 묻노니(停歌爲向蒼崖問)  
지팡이 짚고 시 지어 노닐던 분 기억하는가(能記題詩杖屨來)

앞의 두 구절은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고산협곡의 아름다운 풍광에서 심법(心法)을 떠올린다. 심법은 퇴계학의 핵심인 경(敬) 사상을 연상케 한다. 후반의 두 구절은 이곳 고산에서 퇴계의 자취를 떠올린다. 퇴계는 청량산을 드나들 때 이 길을 이용했고, 또 이곳에는 퇴계의 제자도 있었기 때문에 자주 여기서 노닐었다.

#### 제9곡 청량곡

퇴계가 '우리 산'이라며 사랑했던 청량산

도산구곡의 극치인 제9곡 청량곡(淸涼曲)은 청량산 입구의 강마을인 광석마을 주변이다. 제8곡인 고산에서 물길을 따라 상류로 3.1km 올라간 지점이다.

곳곳에 기암절벽이 우뚝우뚝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청량산(淸涼山, 870m)은 낙동강 상류에 그려진 한 폭의 수목화다. 주세붕은 <유청량산록>에서 청량산의 아름다운 기품을 자세히 적었으며, 퇴계 이황은 자랑스레 청량산 주인임을 내세웠다. 특히 퇴계는 어릴 적 숙부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집에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강변길을 거닐며 청량산과 낙동강이 빛은 자연의 조화를 즐겼다. 퇴계는 나중에 스스로 호를 청량산인(淸涼山人)이라 짓고 이 산에 머물며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의 목적으로 삼은 청량산의 품에 드는 것이다. 낙동강 상류의 깊은 산중에 이토록 아름다운 풍광이 있을 줄 세상은 알지 못한다. 이야순은 혹여나 복사꽃 떠내려가면 세상사람 눈에 떨지 모르니, 백로에게 이 동천을 보호하라 분부를 내린다. 퇴계 이황이 지극히 사랑했던 산이기 때문이다.

구곡이라 산이 깊어 형세가 끊어진 이곳(九曲山深勢絶然)  
 산속에 누가 알리 이런 냇물이 있을 줄을(山中誰認有斯川)  
 복사꽃 뜬 물결에 세인들이 알까 두려우니(人間可怕桃花浪)  
 백사장 백로에게 이 동천 보호하라 분부하리(分付沙鷗護洞天)

이야순은 드디어 도산구곡 긴 여정의 마지막 굽인 청량곡에 이르렀다. 여기서 도산구곡

**여행 길잡이**

안동의 낙동강 물줄기에 위치한 도산구곡(陶山九曲)의 아홉 굽이는 제1곡 운암사곡(雲巖寺曲), 제2곡 월천곡(月川曲), 제3곡 오담곡(鰲潭曲), 제4곡 분천곡(汾川曲), 제5곡 탁영담곡(濯纓潭曲), 제6곡 천사곡(川沙曲), 제7곡 단사곡(丹砂曲), 제8곡 고산곡(孤山曲), 제9곡 청량곡(淸涼曲)이다. 총 27.6km에 이르는 긴 거리인데, 아홉 굽이를 켜는 도보 여행은 쉽지 않다. 현재 제1곡부터 제4곡까지는 호수 때문에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따로따로 답사를 해야 한다. 이 구간은 안동호 수량이 불면 주민의 배를 빌려 타고 둘러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도산서원이 있는 제5곡 탁영담곡부터 제8곡인 고산곡까지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퇴계 예던길'의 도보 여행 코스와도 겹치기 때문에 걷는 것도 괜찮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5번 국도 → 영주 → 지곡교차로(좌회전) → 녹전면 소재지 → 935번 지방도 → 서부교차로(우회전) → 35번 국도 → 오천리(안동군자마을)

**숙식(지역번호 054)**

제2곡 월천곡 진입로 근처에 위치한 안동호반자연휴양림(840-8265, huyang.gb.go.kr)에서 묵어도 좋다. 제5곡과 제6곡 사이에 위치한 가승리의 농암종택(843-1202, www.nongam.com)에서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도산구곡의 마무리 지점인 청량산 입구에도 숙박할 곳이 많다. 안동시청 앞의 부속한정식(855-8898)은 안동 간고등어부터 안동국시, 안동식혜까지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식당.

**참조(지역번호 054)**

안동시청 대표전화 054-840-6114

